

자유·평등·인권 지향 '동학혁명기록물' 가치 세계가 인정

4·19 기록물과 국제자문위 정기회의 등서 세계기록유산 '등재권' 농민군 임명장·진압군 공문서·민간인 일기 등 다음달 등재 확정적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이하 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가 확정적이라고 18일 밝혔다.

기록물들은 지난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제14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정기회의와 지난 11일에 열린 임시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세계기록유산 '등재권' 판정을 받았다.

등재가 권고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과 '4.19혁명기록물'은 5월10~24일 열리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최종 등재 승인을 앞두고 있다.

유네스코는 1997년부터 세계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의 적절한 보존과 함께 기록유산에 대한 대중의 보편적 접근성 강화와 기록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전 지구적 인식 제고를 위해 2년마다 세계기록유산을 지정한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1894~1895년 조선에서 발생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기록물이다. 동학농민혁명은 부패한 지도층에 저항하고 외세의 침략에 반대하며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민중이 봉기한 사건이다.

동학농민혁명은 한국이 변영된 민주주의로 나아

가는 발판을 놓았으며, 유사한 외국의 반제국주의, 민족주의, 근대주의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통해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조선 백성들이 주체가 되어 자유, 평등,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했던 기억의 저장소로서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기록물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동학농민군의 임명장, 회고록 등 동학농민군 기록, 동학농민군 진압에 가담한 관료 및 진압군의 공문서와 보고서 등 조선 정부 기록, 민간인의 문집 및 일기 등 민간 진압 기록, 개인들이 동학농민혁명을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내용을 기록한 개인 견문 기록 등 185건(약 1만3132면)이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비롯해 고려대 도서관,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

서관, 국사편찬위,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천도교 중앙총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등 여러 기관에서 소장·관리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 이만열 위원장은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10년에 가까운 노력이 이제야 결실을 맺게 됐다"며 "이번 등재는 동학농민혁명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원으로서 갖는 무게와 국제적인 위상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게 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신순철 기념재단 이사장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들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체계화하고,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는 2024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



전봉준 장군에 대한 법정 신문 기록인 '전봉준 공초'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제공)

하는 국제 학술대회와 특별전시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정음=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선운산도립공원에 고창 첫 '청년상점' 문 열어

특산품 음료·디저트·농산물 판매 청년창업 자립 기반 조성 기대

고창군이 지역 최초로 청년들이 중심이 된 상점 '청년1번가'의 문을 열었다.

고창군은 청년들의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최근 선운산도립공원 내에 '청년1번가'가 개장했다.

고창군청년정책협의체가 운영하는 '청년 1번가'는 선운산도립공원 내 미활용 군 소유 건물에 자리잡았다.

고창 농산물을 이용한 복분자아이드와 꽃차, 보리커피, 땅콩빵 등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와 제철 농산물을 판매하며 향후에는 청년들이 직접 생산한 가공품 구성 '청년꾸러미' 선물세트도 판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장터 참여, 지역축제 연계제품 개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케팅 등 빈틈없는 홍보 전략으로 온라인 판매로까지 영역을 확장



심덕섭(앞 왼쪽 다섯번째) 군수가 선운산도립공원 내 자리잡은 '청년1번가' 운영주체인 고창군청년정책협의체 회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창군 제공)

해 나갈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자리잡아 이를 계기로 청년들 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돌아오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매니페스토평가 최우수 'SA'

6대 분야 41개 사업 추진...민주·투명·공약일치도 등 평가

남원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우수 'SA' 등급을 받았다.

17일 매니페스토본부는 선거공약의 실효성과 실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철학과 비전, 연차별 이행로드맵과 재정계획 등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을 평가해 남원시에 SA등급을 부여했다. 갖춤성, 민주성, 투명성, 공약일치도 등 4개 분야 35개 지표에 대해 점수를 매겨 SA 90점 이상, A 80점 이상 등 B·C·D까지 5개로 등급을 차등했고 90점 이상을 획득한 남원시는 SA등급을 받았다.

남원시는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경제도시 ▲일하고 싶은 창조도시 상생하는 지역경제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글로벌 아트도시 조성 ▲친환경 미래농업으로 6차산업 선

도도시 ▲함께하는 나눔복지 밝은 미래교육 ▲열린 소통으로 화합하는 혁신행정 등 6대 분야 총 41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공약실천계획서를 바탕으로 공약사업 이행을 향상을 위해 정기적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세심하게 공약사업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주민배심원제, 정책자문위원회 등 시민참여를 증진함으로써 일 잘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하는 데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앞으로 시민 소통과 성실한 시정수행을 바탕으로 시정의 전 분야에서 실행력과 추진력을 더욱 높여 모든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민선 8기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 '소규모 점포 경사로 설치' 지원

300㎡ 미만 대상업소 모집

정읍시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했던 '소규모 점포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의 대상업소를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점포 앞 문턱 때문에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과 출입이 어려운 생활시설에 대해 맞춤형 경사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추가사업 대상업소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의무설치 시설이 아닌 300㎡ 미만의 소규모 점포다.

경사로를 알루미늄, 철판, 방부목 등의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현장 여건에 맞춰 설치된다.

경사로 설치를 희망하는 소규모 점포는 정읍시 지체장애인협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지방세체납 등이 없어야 하며 임차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청순서에 따라 현장 방문 후 설치가능 여부 등을 살펴 지원이 결정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음=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정읍시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지역 음식점 입구 맞춤형 경사로.

남원 신혼부부 공공임대 보증금 지원

최대 2000만원...다음달 4일까지 신청자 모집

남원시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예정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거복지를 한층 두텁게 할 뿐 아니라 출산율 감소위기를 타개할 방안으로 기대를 모으는 전북지역 대표 정책이다.

대상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다.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최대 2000만원까지(계약금 본인 부담)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1회 2년으로 하며 자녀수에 따라 최대 4회까지 연장(최대 10년)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5월4일까지다. 1차 모집 후 예산 범위 내 추가 선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신혼집 마련, 출산으로 고민이 많은 신혼부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남원시는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단지점, 동광주지점, 각학지점